

(2) 한글 맞춤법

제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	----	----	----	-----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말이다

찾다[찰따]	찾아[차자]	찾는[찬는]
--------	--------	--------

제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그는지금학교에간다. →

☞ 참고

단어란?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를 가리키며,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다.

1 형태에 관한 것

제15항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올다			(우니)
찾다		찾아	
깎다	깎고		
넙다			
웁다			
잇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용언 + 용언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원형을 밝히어 적음	넘어지다 돌아가다 떨어지다 틀어지다	늘어나다 벌어지다 엮어지다 홀어지다	늘어지다 들어가다 접어들다
	(2) 본뜻에서 멀 어진 것	소리 나는 대로 표기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제19항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달맞이	깊이 먹이	높이 벌이	다듬이 살림살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울음 앓	뉘음 웃음 만들	민음 졸음	얼음 죽음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많이	굳이 짓궂이	같이	높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제20항 |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뭉뭉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바둑이	삼발이				

제30항 |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긱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모깃불	바닷가	뱃길	선짓국
씻조각	아랫집	잣더미	조갯살
차집	햇볕	햇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아랫니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넋물	빚물
-----	------	-----	----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뒷일	베갯잇	갯잎	나뭇잎
----	-----	----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차잔	택줄	턱세
-----	-----	-----	----	----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이 덧나는 것

제삿날	훗날	튀마루	양치물
-----	----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예삿일	훗일
-----	-----	----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튀간(退間)	횃수(回數)
--------	--------	--------	--------	--------	--------

제35항 |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ㅗ/ㅛ’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꽂	꼬았다	꽂다
보아	봐	보았다	
오아			왔
두어	뒤		
주어			

[붙임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2] ‘ㅛ’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ㅛ, ㅜ’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되어	돼	되었다	됐
뵈어		뵈었다	
괴어	괘		
쇠어		쇠었다	
췌어			

2 소리에 관한 것

제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가끔	깨끗하다	거꾸로
부쩍	어찌	해쓱하다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짤	몽땅	엉뚱하다

제13항 |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ㅇ)	ㄴ(x)	ㄱ(ㅇ)	ㄴ(x)
짹짹한	짹짹한	꼳꼳하다	꼳꼳하다
쌉쌉	쌉쌉	눅눅하다	눅눅하다
뚝뚝뚝뚝	뚝뚝뚝뚝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하다	씩씩하다

제10항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ㅇ)	ㄴ(x)	ㄱ(ㅇ)	ㄴ(x)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익명(匿名)	닉명

붙임 |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은닉(隱匿)

제11항 |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 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ㅇ)	ㄴ(x)	ㄱ(ㅇ)	ㄴ(x)	ㄱ(ㅇ)	ㄴ(x)
양심(良心)	량심	역사(歷仕)	력사	예의(禮儀)	례의
용궁(龍宮)	룽궁	유행(流行)	류행	이발(理髮)	리발

다만 ‘렬, 룰’은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오면 ‘열, 율’로 적는다.

합격	경쟁	취업	직	결
출산	투표	비	운	한

☞ 참고

‘양/량’의 표기

량은 단독으로 쓰이면 ‘양’, 다른 단어 뒤에 쓰이면 ‘양’이나 ‘량’으로 쓸 수 있다.

한자어 뒤 : 양

고유어, 외래어 뒤 : 양

3 띄어쓰기에 관한 것

제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부터입니다	꽃에서처럼

제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아는 대로 해라.

ㄹ 품사의 통용

형태상으로 동일한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 문장 안에서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주목하여 품사를 확인해야 한다.

만	의존명사	나는 달린 지 오 분 만에 숨이 찼다.
	조사	나는 밥만 먹었다.
대로	의존명사	본 대로 말했다.
	조사	법대로 했다.
만큼	의존명사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조사	나도 언니만큼 요리를 잘한다.
뿐	의존명사	모두 구경만 할 뿐이다.
	조사	오직 실력뿐이다.
지	의존명사	그를 만난 지도 오래 되었다.
	(-ㄴ 지) 어미	얼마나 부지런한지 일을 빨리 끝냈다.
데	의존명사	그는 책을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ㄴ 데) 어미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이 좋다.

제43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연필 한 자루	열 살	신 두 켤레	조기 한 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16동 502호	제1실습실	10개	7미터